

발신 : 총여학생회 조직부

수신 : 과여학생회(인문대, 사회대, 농대) 과부학생회장님(사범대, 자연대)

내용 : 93년도 하반기 과여학생회 사업 지침서



93년도 하반기 과여학생회 사업 지침서

순서

1. 들어가며
2. 하반기 과여학생회 사업기조
3. 하반기 과여학생회 사업내용
 - ① 행사사업
 - ② 일상사업

1. 들어가며

오랫말입니다. 과여학생회장님, 과부학생회장님!

방학은 잘 보냈구요? 건강들 하시죠?

개학을 하고 학우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2학기 여학생회사업을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2학기에는 과여학생회 일꾼들이 대충 벌여놓은 사업 정리하고 내년 주체 마련해서 한해 과여학생회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뽑아준 학우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선거때 내놓은 공약들을 되짚어 보면서, 학우들의 이해에 맞는 행사사업도 준비해보고, 일상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겠습니다. 8월 21~22일에 여학생회 일꾼 모꼬지가 있었는데, 오신 과간부님들과 함

게 여학생회 간부로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똑바른 여학생회 간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하반기 사업을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일꾼 모꼬지에 안가신 과간부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2학기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서가 과 여학생회 발전에 조그맣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조직부는 소위에 포괄된 과뿐만 아니라 다른과 여학생회 일꾼들도 자주 만나볼 생각입니다. 우리 힘써서 잘해 봅시다.

2. 하반기 과여학생회 사업기조

상반기에 과여학생회 사업을 하고 나면 마치 한해 할일을 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대충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과마다 학생회 행사사업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여학생회가 자신의 고유사업을 놓치고 학생회 일을 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결코 여학생회가 올곧게 설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동한마당으로 과학우들을 여학생회로 모아내고, 일상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내년 주체를 세워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과여학생회 사업기조는 내년의 과여학생회 주체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과학우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사사업을 통해 과에서 여학생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일상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내년주체를 세워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하반기 여학생회 사업 내용

[1] 행사사업

☞ 여학생 단합대회

방중에 보지 못했던 여학우들을 한자리에 모아 방중생활에 대한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2학기 여학생회 사업내용을 알려내고, 즐거운 놀이도 함께 하는 흥겹고 반가운 자리를 준비해봅시다.

☞ 여성문제 공개 토론회

요즘은 페미니즘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고 있으며,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학우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도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회 일꾼들이 그러한 과학우들의 관심과 학우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고, 또한 학우들 서로가 토론을 벌여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형식은 딱딱하게 하지 말고, 과방에서 자유스럽게 진행하면 좋겠고, 기초발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사회자가 논점을 중심으로 학우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성문제중 과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채택하도록 합시다. 이왕이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과에서의 여성문제도 좋지요) 여학생회가 앞장 서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면 더욱 좋겠구요. 토론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올바른 관점과 전망을 제시하는 공개 토론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연과 여학생회 일꾼들은 주제가 정해지면 미리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후 학우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빠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나 조금 안다고 해서 학우들의 생각을 바로 잘라 버린다는가, 학우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이 대꾸한다면 절대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토론을 하기가 뱃하면 미리 영화상영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반드시 토론주제에 맞는 영화를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방에서 학우들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작품성있는 영화면 됩니다. 사람이 작게 오면 어떡할까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과학우들이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여학생회가 한번 만들어 보는 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영화상영

작년부터 과에서 여성영화 상영을 시도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영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여에서도 상영한 영화이거나 이미 학우들이 본 영화가 대부분이어서 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영화 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보급의 차원에서 여학생회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영화나 선정적이고 내용성 없는 흥행성 영화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작품성있고, 내용이 담긴 영화를 찾아서 상영한다면 학우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우수한 영화를 학우들에게 알려낼 수 있을 것입니 다 여학생회라고 해서 언제나 여성문제의 내용만 가지고 사업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물론 여성영화를 상영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화 상영을 하려면 먼저 과에 선전을 합시다. 영화평을 간단하게 적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짚어서 상영하는 장소에 자보를 붙여 놓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마농의 샘, 하얀전쟁, 부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인도차이나, 황비홍, 그대안의 블루)정도 입니다.

⦿ 여연발표회

과마다 여연 발표회 준비로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연 발표회를 안하는 여연도 있더군요. 인문대의 경우는 과학술제때 여연 발표회를 함께 할려고 하는데 과에서 학술발표회가 없는 과에서는 인원동원 문제로 또, 이전의 경험이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우들에게 여연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려내는 것은 과소모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적게 오면 어떻고, 여연의 내용이 좀 빈약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면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여연 발표회를 하고 나면, 그를 통해서 여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연 구성원들이 더욱 친밀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에서 이후 여연의 정기 행사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도 되구요. 꼭 해보세요.

내용은 과학우들의 정서에 맞는 것이나, 전공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면 학우들의 참여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취업간담회

과여학우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취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증거겠지요. 쉽사리 건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구요. 작년 인문대 국문과의 예를 들면, 과에서 취직한 선배를 모셔놓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고 하는데 무척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취업정보를 알려주는 간담회가 아니라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배들의 경험을 들어 볼 수 있고, 자신의 고민을 물어 볼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과여학우들도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데에 많은 힘이 들겠지만 취직을 한 선배, 대학원을 준비하는 선배님들을 모셔놓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 여학생회지

과에 예산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된다면 여학우들의 글, 여성문제에 관한 칼럼, 한해 여학생회 사업총화, 만화등을 실어서 학기말에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일상사업

☞ 선전

기획선전 : 1학기의 흐름을 이어 2학기에도 기획선전을 준비했으
좋겠습니다. 내용은 최근 페미니즘과 관련된 영화나 TV
평, 한겨레 한마당에 나오는 여성란 모음, 최근 나온 여
성문제와 관련된 소설의 비평등

일상선전 : 학교 직장 탁아소에 관하여,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관한 것(근본적인 성폭력 추방에 대한 내용 선전포함),
총여 대동한마당, 여성문제에 관한 신간 서적 소개

☞ 여연사업

과마다 여연은 여연 발표회로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따로 커리를 마련하여 공부한다기 보다는 여연 발표회 준비를 위한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간소개로 여연의 내용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 책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겠고, 과학우들에게 권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간소개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읽을 것을 목표로 하면서 남북한 여성의 문제를 단행본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학을 위한 자료나 남북통일에 관심있는 단체의 교재 또는 참고도서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였다고 하며 일정부분 여성학의 올바른 전망을 세운다기 보다 자료제시의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궁금증과 현실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 같다.

또 하나의 조국 북한,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로 궁금증이 많긴 하지만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과 특히 북한여성의 모습을 반영한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책을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1)여성학이 대두된 배경과 2)남.북 여성의 현실을 나누어 제시했으며 3)마지막으로 남한 자본주의를 상징한 매스 미디어에 반영된 가사노동에 대한 것으로 구성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부분은

@남한사회의 현실은 가족, 가정주부, 성차별적 교육, 직업, 경제활동 현황, 성문화, 성폭력, 한국사회와 여성, 여성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여성의 현실은 북한여성, 여성정책, 의식주 생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모성보호, 북한여성의 지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 남.북한 여성들의 현주소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국내외에서 조사한 여성에 관한 속담 4백 수십개의 수집인데 역사속에 나타나는 남성의 여성에 관한 시각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연애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명작소설--

여성해방비평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여성문제를 형상화 하는데서나 비평가가 작품을 읽는데서나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태도가 많이 개입되어온 점을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여성의 입장에서 문학을 새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책 또한 서양명작에 대해 새롭게 분석해 봄으로서 이들 작품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작가자신이 벗어나기 힘든 남성우월 사상, 성차별적 편견을 끈게 반영했음을 새로운 여성문제의 형상화라는 틀로서 재조명해내는 작업이다. 이 책속에서 소개되어져 재조명되어지는 작품은 제인에어, 적과 흙, 주홍글씨, 안나 카레니나, 무명의 주드, 연애하는 여인들, 대리의 딸이다.

*남성연구

--때론 엇지랴 함께 가여할 반쪽에 대한 보고서--

성균관 대학교 재학시절 여학생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 여성모임 '사랑(思量)'이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관성의 벽에 가리워진 많은 문제들을 모은 이 책은 '하늘의 절반'으로 살아갈 이 땅의 당당한 딸로서 우리의 몫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여성은 열등하다'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을 굳이 구분하여 각각의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모든 사회정치 구조와 문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고 이 속에서 남성해방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역할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라 분투하는 남성들, 기존의 왜곡된 성관념을 청산하고 남성의 역할과 지위를 새롭게 자리매김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인간답게 다시 서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성문제의 해결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듯이 이 속에서 여성못지 않게 힘들어하는 남성을 아는 것, 그것이 여성문제를 없애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며 바로 이책이 쓰여진 목적이며 의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유를 위한 변명

전위 무용가인 홍신자씨가 쓴 자서전 '자유를 위한 변명'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파격적이라 할 만큼 독특한 삶을 걸어왔던 한 예술가의 삶을 느끼게 하며 "여자로서 삶의 한 굴레에 갇힌 한 인간으로서 하고픈 것은 다 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그의 말을 통해 서두의 "절실하고 강렬한 체험이 하도 많아서 마치 인생의 환상을 다 보아버린 느낌" "이제 방안에 누워 천정만 보며 남은 인생을 살래도 별 억울할 게 없다"고 담담하게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코 끝을 찡하게 하는 감동이 있다.

춤과 표현의 문제, 스승과 종교, 고독과 죽음, 결혼과 임신, 가족과 사랑 등 모두 11개 주제로 나누어 서술된, 보통의 연대기적 기술을 벗어난 독특한 형식의 이 자서전에는 무용가로서, 명상 수행가로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에 앞서 한 나약한 실존자로서 부딪쳤던 수많은 고민들을 하나도 회피 않고 맞서 부딪치고 치열하게 고민해 얻은 명료한 '철학'을 만나게 된다.

세계적인 전위 무용가, 명상가, 라즈니쉬의 첫 한국인 제자 등 재미 무용가 홍신자씨를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식어를 찾기란 몹시 어렵다. 그녀 어머니의 속고쟁이였던 것을 10년이 넘도록 입고 세계의 대도시를 쏘다닌, 바지만큼이나 자유로운 삶을 산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1983년 6월에 만들어져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상담사업을 시작한 [한국 여성의 전화]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년의 결실을 정리하는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가지가 구타당한 아내들의 수기를 공모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책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이다.

이 책을 통해 단순히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이 부부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내구타 후 행해지는 폭력적인 성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 아내구타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통념들, 법이나 의료제도, 형사 사법 처리상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매맞는 아내에게 불리하게 다가가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겨웠지만 그것을 곳곳히 딛고 일어서는 자주적인 삶을 향한 노력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생각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을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어떻게 없애 나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내구타 문제는 결코 한 개인의 삶의 몫으로 들릴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된 여성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속에는 엄연히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올리고 밝혀내려는 그들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대 지금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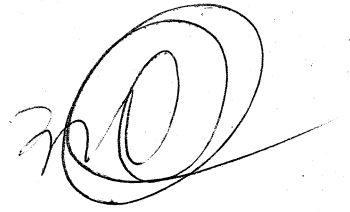
이 책은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여성소설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대중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이 속에서 여성문제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나온 작품들이다. 이 소설모음집은 여성작가 뿐만 아니라 남성작가의 작품들도 수록하였는데 여성문제의 인식에 있어 여성과 남성은 모두 문제해결의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한다.

80년대 이후의 소설이 이전 소설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성이 자신 문제를 가족 혹은 가정의 테두리에서 한정짓지 않고 전체 사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성적 삶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성장한 결과이지만 그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여성을 둘러싼 사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진보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성과물로서 작품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양이 많아지는 것과는 별도로 대개의 중산층 여성의 삶을 다루는 가운데 여성문제를 형상화하는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그 주된 경향에 있어서 성차별의 차원에서 문제의식이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짙었고 그 결과로서 남성이 여성문제에 있어 적대적인 존재처럼 그려지는 경향이 컸다는 점이 그 동안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시기 여성소설의 한계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여성의 삶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형상화해내는 문학적 경향과 그 속에서 올바른 여성해방의 관점을 독자들에게

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지점일 것이다.



☞ 탁아사업

1학기 때 탁아자원 봉사자나 탁아후원회를 꾸린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었습니다. 탁아자봉이나, 후원회가 있는 과는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실 2학기가 되면 1학기때 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것이 탁아사업입니다. 방학기간의 활동중지나 단순한 자봉활동으로 인한 지침, 2학기의 시간표 조정등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에서 탁아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 안아야 하는 지를 말입니다. 과에서는 대충 학우들을 모아서 탁아 자봉을 하게끔 만드는 것, 또한 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는 않았는지요? 탁아 자봉활동과 후원회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각자 내용을 가지고 자기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학생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학기에 탁아사업을 고민하지 못한 과에서는 지금이라도 재모집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업은 1학기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탁아자봉모임과 후원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탁아자봉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경험을 나누도록하고,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딱딱한 커리를 가지고 하기 보다는 주제를 놓고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탁아소에서 아이들 보거나, 빨래, 청소, 밥짓기 등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속되면 자봉들의 원래 가졌던 열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빈민탁아소라는 특징때문에 일반학우들과 정서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탁아소 교사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를 스스로가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자봉활동은 지속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탁아자봉모임을 하는 주체는 반드시 활동하는 탁아소를 방문하여 교사선생님과 학우들의 자봉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또한 자봉들이 탁아소활동의 영역을 넓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탁아소회지를 만드는데 자봉글을 내어본다든가, 자봉 모꼬지에 참여한다든가, 탁아소를 단장할 때 도운다든가 하는 활동말이지요.

탁아후원회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탁아후원회가 사실상 자봉모임보다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탁아소를 제정적으로도우는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돈만 내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니 모임을 해도 뽀족한 내용도 없구요. 그래서 생각해 본것인데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탁아소를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한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탁아소를 방문한다면 아이들 얼굴도 볼 수 있고, 탁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교사선생님께 들을 수도 있으니 후원회 활동의 중요성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원회원들이 친밀해 질수 있는 계기도 되겠구요. 결의만 모은다면 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탁아소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나 일일 찻집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아래는 탁아자봉 소모임에서 할 수 있는 커리를 뽑아본 것입니다.

탁아자봉 소모임 커리

1. 비영리 민간 탁아소, 탁아운동이란 무엇인가?
2. 자원봉사자 활동가의 역할
3. 영유아 보육법(우리나라 보육 역사,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방향성)
4. 대탁연과 지탁연
5. 사회복지의 한부분으로 탁아(신경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탁아 전망)
6. 직장 탁아소(학내 탁아소)-올바른 직장 탁아소 설립을 위해
7. 여성으로서 탁아운동
8. 아동교육(유아기 발달의 특성, 아동교육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것)

이것은 탁아소 교사님과 자봉등이 함께 이야기 해봐도 좋겠습니다.

올바른 탁아 인식을 위한 책 모음

1. 반쪽이의 육아일기--여성 신문사
2. 여성 취업과 탁아 운동--등에
3. 일하며 키우며--일본 보육사
4. 빈민 여성 빈민 아동--아침

☞ 인복사업

과여학우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복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과여학생회 일꾼님들은 과여학우들의 인복을 위한 사업을 항상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방이 있는 층의 여학생실에 생리대를 쌀 수 있는 종이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PET병 자른 통에 못쓰는 종이를 생리대를 쌀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화장실 벽이나 문에 여학생회 내용으로 선전을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둘째, 여성과 사회를 듣는 과학우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과여학생회가 제공하거나 도움말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학생회 일꾼이 듣는다면 여성과 사회를 듣는 학우들의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북현에 탁아소가 생긴 다는데?.....

최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핵가족 형태의 가족 제도하에 기존 여성들의 육아 부담과 아동의 양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취업 여성이 56%가 일나갈 때 자녀를 양육한다는 조사부 통계 발표는 우리의 이야기다.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위험을 물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100만이 넘는 아이들 중 탁아소 교육 가능 인원이 10만 밖에 되지 않아 결국 대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 아이들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문제를 커다란 사회 문제로 탁아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천민척에게 아이를 맡기고, 미안 양육비를 내어야 겨우 탁아소에 다닐 수 있는데 이에 부모들은 탁아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다고 아난다고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들도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탁아 문제는 결코 북현의 교직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50만원 안팎의 여직원 월급중 1인당 탁아비 부담을 30만원 정도가 들고 탁아비를 줄이려 천민척이나 이웃에 맡겨 놓으니 교육과 안전, 형질문제등 여러가지로 어머니들의 애를 태우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불안정은 직장생활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적, 학교적, 국가적 손실이다. 남녀 직원들이 탁아문제로 인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탁아문의 일반적인 해결과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일의 능률을 올리고 올바른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갖게 하는 학내 탁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탁아문제는 결코 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면 누구나 가지는 낭면 과제이므로 직원노조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탁아소 설치문제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노조와 총여는 제 3복지회관에 탁아소를 마련키 위해 자료조사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관에 탁아소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탁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서지 못한 본관측은 탁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규정짓고 교직원 관리 문제와 이제껏 다른 학교에 설치가 없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탁아 인식에서 비롯된다. 육아의 문제는 더이상 개별적인 것,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탁아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그 중 3중고(육아,가사,생계)에 시달리는 모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인한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 해야할 낭면 과제이며 육아의 사회화는 이루어 져야 한다. 학내 탁아소 설치는 몇 사람 소수의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교직원이 희망하고 있고, 2만학우 또한 공감 후원하는 바이다. 북현의 탁아소 설치는 다른 학내 직장의 모범전파가 될 것이며 육아의 사회화에 본보기로 설 것이다.

또한 여성문제의 하나로써 탁아문제는 일부 교직원뿐만 아니라 7천 여학우가 앞으로 낭면 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학내 탁아소 설치는 7천 여학우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며 결국 이러한 모범전파는 자발적 탁아소 설립의 활성화로 인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운동으로 발전하고 7천 여학우와 직장여성들의 경제적 활동보장과 육아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교직원 노조와 총여학생회 7천 여학우는 함께 노력할 것이며 본관측은 즉시 학내 탁아소 설치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